

정신장애-소외는 이제 그만, 보살피자

(Stop exclusion, Dare to care)

2001년 4월 7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보건의 날을 주목할 것입니다. 금년을 정신보건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신장애자와 그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며, 아울러 많은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이 이루어 놓은, 장애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업적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의 관심이며 희망입니다.

그 길은 멀리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과 은폐와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가족은 거의 없으며, 힘든 시기에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치 않을 가족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모르는 척 하거나 아예 무시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를 모릅니다. 구하면 제공될 수 있는 도움, 그것도 저 비용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말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장애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지와 고통과 빈곤과 심지어 사망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할 능력이 있습니다. 민중에게, 사회에, 정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식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4억의 인구가 정신·신경장애와 알코올과 약물남용과 같은 정신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없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이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낙인과 치욕과 소외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4억의 인구가 정신·신경장애와 알코올과
약물남용과 같은 정신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없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이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낙인과 치욕과 소외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Dr. Gro Harlem Brundtland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과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부에서는 저들 국민들에게 적절한 치료수단을 제공하는 일에 소홀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장애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인권은 침해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어 있지 않으며, 불평등한 보험체계와 차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연히든 의도적이든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청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을 기회와 도전의 날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날과 이 주간을 통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전환하도록 합시다. 모든 회원국들이여, 우리 모두 건강하다는 것이 또한 정신적인 건강을 의미하게 될 그날을 향하여 함께 일할 것을 맹세합시다.

지난 세기는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두뇌와 기술의 발전이 50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질병들이 정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조기사망과 불구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건강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책 역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미 많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체계적으로 그 방안을 탐구해 갈 때 여기에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해결책들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성공은 더욱 뜻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소외는 이제 그만, 보살피자.”